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규 열



철수! 어릴 적 초등학교 교과서의 '영희와 철수' 이후로 '철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달군 적이 있었던가?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안철수를 향해 본격적으로 격제구를 던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그가 요 근래 한 것이라곤, 책 한 권내고,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한 번 출연한 것이 고작인데, 정치 밤반 수십 년씩 먹은 직업 정치인들이 허둥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 생각마저 든다.

사실, 안철수가 말하는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후보들 주장의 교집합을 구하면, 어차피 정의로운 북미국가 건설로 모아진다. 집권 여당의 밖근데 후보 공약의 핵심 또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북미국가 구현 아니던가.

그렇다면, 안철수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에 국민을 사로잡는가. 우리는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경험한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은 감동을 주는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전혀 감흥을 느낄

수 없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답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가치관에 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요인들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한다. 첫

안철수 신드롬

째, 전문가나 신뢰할만한 개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신이 커질수록 해당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개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긴 설명이 구하된다.

둘째, 그 사람의 언행이 그 자신의 이익과 배치될 때, 특히 희생이 동반될 때 신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예수가 그렇고 석가모니가 그렇다. 그 희생에 바탕한 신뢰는 기독교와 불교라는 종교가 된다. 제 게바라가 젊은이들을 향해 따스한 가슴으로 두 팔을 벌려 안아 주었다.

은 이윤추구라고 외칠 때, 그는, 백신을 개발해 민간에 무료로 배포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안철수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었다. 자본주의의 말기적 증상들이 여기 저기서 망령처럼 떠돌아다닌다. 삶의 막나른 길목에 내몰린 이들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려 하지 않는다. 아니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집단우울증에 빠진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해 따스한 가슴으로 두 팔을 벌려 안아 주었다.

그는 당연히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들과 삶의 진실과 희망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소통은 상대의 고통을 같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올림픽이 한창이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들이 자랑스럽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의 청량제이기도 하다. 금메달 숫자만으로는 세계 3위나 대단한 선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명예스런 분야에서도 금메달 국가다. 자살률과 저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몇 년간 부동의 1위다. '자살률 최고'는 현재가 없음을 의미하고, '출산율 최저'는 미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다.

안철수 신드롬이라 한다. 배경을 두고 이런 저런 해석을 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지금껏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앞으로 전진!'만 외쳐 왔던 성장지상주의에 우리들이 많이 지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로 상징되는 착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통해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싶은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광주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고



김 포 전

런던올림픽 개막공연의 메시지

중심적, 위압적, 정치적이었다면 런던은 자기 중심적,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개막공연은 우선 생태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올림픽 스타디움 한쪽은 영국의 전통마을로 꾸며 전원 마을의 모습이 한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지게 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가 묘사한 '즐거운 녹색의 땅'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둘째,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스토리로 엮은 것이다.

개막공연은 세이스피어에서 비틀스에 이르기까지 영국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총망라해서 스토리로 구성했다. 영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세세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팝 음악과 접목시키 친근하고 리버럴한 이미지를 만들어 그래서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하게 했다.

개막공연의 대미는 비틀스의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가 장식했다. 얼굴은 늙었어도 소리와 몸짓은 젊었다. 현장의 8만 관중은 물론 전세계가 그와 함께 '헤이 주드'를 합창했다.

우리도 우리의 문화적 콘텐츠나 문화적 자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율러 보편성, 세계

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 문화적 콘텐츠나 자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구성의 기교요 극작술이다.

셋째, 대규모 대신 차치와 상상력이다.

런던 개막공연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공연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해냈다. 우선 대니 보일 총감독은 어깨의 힘을 빼고 일을 시작했다. 개막공연의 예산액이 공연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치로 문화적 상상력이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양면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팝 음악과 접목시키 친근하고 리버럴한 이미지를 만들어 그래서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하게 했다.

넷째, 과격과 반전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007배우 다니엘 크레이그와 함께 헬기에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낙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탄성을 질렀다. 비밀로 했던 성화점화자는 예상을 깨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가 될 차세대 유망주 7명의 선수였다.

역시, 과격과 반전은 보는 사람들의 감흥을 높여준다.

다섯째, 유머 코드다.

슬그머니 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루한 분위기를 슬쩍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해학이나 의실이 공연 물에 적절하게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시간 공연물수록 더욱 그러하다.

개막공연에서는 '미스터 빈'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로렌 엣킨슨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옆에 앉아 의실스런 연기를 보여 주었다.

여섯째, 낭독의 예술성이다.

배우겸 영화감독인 케네스 브라너가 '템페스트'의 한 대목을 낭독하고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롤링이 어린이 문학의 고전인 '피터팬'의 도입부를 직접 낭독함으로써 개막공연은 영국문화를 친밀하게 빛냈고 낭독의 예술성을 일깨워주었다.

이곳 광주에서는 낭독의 예술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낭독 공연을 어설프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기뻐한 바 있거니와 기록유산이 누워있지만 하지 않고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기록물의 낭독회를 학교에서 사회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광주에서도 낭독, 낭송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극작가>

할 정도였다. 남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술만 막다보니 언제나 술에 취해 있을 정도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있던 어느 날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남자는 아직까지 생명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으면 딸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심정이라고 한다.

위에서 본 아이와 남자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이다. 독자 여러분은 아이와 남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지 결론을 낼 수 있는가. 필자는 아직까지 100%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선처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엄히 처벌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든다.

중년의 남자는 다음 재판기일까지 알코올 중독치료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받아 오기로 했다. 과연 그가 약속을 지킬까. 그 사람은 술을 끊고 그 자리에 삶의 의지를 채워서 살 수 있을까. 필자는 기다려 보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요치 않다.

사실 대학생이 되면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해서 더 예뻐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순히 할 인해준다는 이유에 혹해서 인터넷 광고 같은 것만 덜컥 믿고 선뜻 수술에 나서지만 부작용과 수술 후유증도 적잖을 것이다.

성형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다. 그러나 오로지 모든 걸 성형에 의존해야만 하는듯한 사회적 분위기는 좀 문제인 것 같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인천동

법조칼럼



정한근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첫 번째 사례는 필자가 검사로 일할 때 직접 접했던 사건이다).

첫째, 아이는 우리 나이로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토바이를 훔쳤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보름에 한 번 정도 집에 올 수 있었다. 아이는 어릴 때는 할머니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보름에 한 번 정도 집에 올 수 있었다. 아이는 어릴 때는 할머니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머니와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영어학원 등을 다니면서 자신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오토바이 타는 재미에 끌 빠졌다. 오토바이를 타면 모든 균신이 없어지는 듯 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같은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므로 외롭지 않고, 자신이 '아웃사이더'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 좋았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어린 나이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른바 전과자가 됐고, 주위에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둘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혼자 산 지 2년 정도 되었다. 남자는 실직 이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남자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지만 몸이 아파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에는 월세도 내지 못

할 정도였다. 남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술만 막다보니 언제나 술에 취해 있을 정도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있던 어느 날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남자는 아직까지 생명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으면 딸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심정이라고 한다.

위에서 본 아이와 남자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이다. 독자 여러분은 아이와 남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지 결론을 낼 수 있는가. 필자는 아직까지 100%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선처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엄히 처벌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든다.

시설

전남대 '직선제 폐지' 대학 발전 계기 삼아야

전남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학본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로 생길 수 있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우려해 직선제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대는 지난 3일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일부 개정을 밝혔다.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김윤수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6일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학칙이 개정되면 2016년 20대 총장후보자부터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된다.

전남대는 지난 1988년 4년제 국립대학 최초로 대학자율성 보장, 민주화 수단으로 총장직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폐지 결정은 무엇보다 대학발전이라는 실리를 저버릴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직선제를 고수하는 동안 일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도 상당했다. 실제 전남대는 지난

도 활동부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 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의 연계가 필수인데도 역으로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 경유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억지나 다를 바 없다. 이는 호남에 대한 흘대를 떠나 무시하는 처사다.

국가 기간교통시설인 고속철도는 현재의 경제성보다는 장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9년 12월 4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고속철도와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국가가 선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프랑스 파리 샹드름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일본 간사이공항,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국제공항과 고속철도의 연결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 국토부는 당장 전제 조건을 폐지하고,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파인 스타일의 흐리로 불리는 헤르만 블론 쿠르트 디엠베르거와 함께 했고, 라인홀트 메스너의 파트너는 한때 동생 군터였다.

우리에게는 '친구여 자일을 끊어라'로 소개된 조 심슨과 사이먼 에이즈의 안데스산맥 시울라 그란데(Siula Grande) 생활이나 거벽등반가 정현이 후배 최강식과 함께 랠리(Challate) 놀이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유동하다.

그들은 차일을 대신 전제 기준의 호남선을 활용하고, 건설 시기에는 공항 수요 여건이 성숙된 시점에 신설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신설 노선 건설은 물거품 되고 기존선으로만 달릴 수도 있는 셈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단서는 누가 보더라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일사프트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레이스에 도전하고 있는 김홍빈 대장(48)과 김미곤(40·한국도로공사산악팀)씨가 지난달 31일 '하늘의 절대군주' K2(8611m) 정상을 나란히 밟았다. 2006년 가설브룸Ⅱ를 시작으로 애베레스트와 디올라기리에 이어 4번째 동시 등정이다. '자일의 정'으로 오는 이유다.

대개 오랜동안 등반을 함께 한 동료나 선후배가 자일사프트가 되지만 때론 형제, 부부가 한 조를 이루기도 한다. 알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할인해줄테니 고쳐라? 성형 부주기는 광고 자체를

그렇게 연초와 겨울방학 때 수능성형이라 는 식으로 학생들을 유혹한다.